



역동적인 동작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천상.



K-Pop 메들리에 맞춰 멋진 동작을 선사하고 있는 세단.



우아하게... 때론 격렬하게...

**사진=김경수기자



빛나리(방하린군)이 무대위에 올라 멋진 춤사위를 벌이고 있다.



유연한 몸놀림을 선보인 한울(최연정양).



힘있는 동작을 펼치는 독수리오형제 멤버들.



멋진 연출로 무대 위에 연기하는 듯한 춤을 선보이고 있는 어뮤즈.



무대 위에 올라



특별상을 수상받은 리틀킥차.



개인 참가자로 무대에 오른 하윤비양.



귀엽게 뛰어오르고 있는 리틀킥차.



어뮤즈가 우수상을 수상받은 뒤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받은 세단이 김승곤 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려상을 수상받은 빛나리.



대상을 차지한 천상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 멋진 자세를 취하고 있다.